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4. 1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프랑스, '파리테러 피해자'를 사칭하며 보상금 타낸 2명 실형 선고
 - 佛 현지언론은 4.10 파리 형사법원이 '15.11월 파리연쇄테러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국가가 조성한 기금(FGTD)에서 보상금을 타낸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고 보도
 - * 同 테러 피해자라고 속여 보상금을 타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총 15명
- EU의회, 인터넷 테러콘텐츠 '당국통보 1시간 내 삭제' 법제화 추진
 - 유럽의회는 보안당국이 인터넷업체에 온라인상 테러콘텐츠를 통보한 경우 1시간 내 이를 삭제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며, 4.17 본회의 표결 후 EU이사회와 본격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
- 이탈리아 경찰, 테러모의 혐의 ISIS 동조자 2명 체포
 - 4.17 현지언론에 따르면, 이탈리아 경찰은 시리아 내 ISIS 합류 목적으로 전투훈련을 하던 중 ISIS 패퇴로 계획이 좌절되자 이탈리아 내에서 테러를 모의한 ISIS 동조자 2명*을 체포
 - * 인터넷을 통해 폭탄공격 및 자살테러 방법 영상을 내려받고, ISIS 찬양 사진과 영상을 게시

아프리카

- 美軍, 소말리아 內 공습으로 ISIS 2인자 사살
 - 4.14 VOA는 소말리아 푼틀랜드州에서 美軍 공습으로 'ISIS 소말리아 지부' 2인자 「압디하킴 모하메드 이브라힘」이 사망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- 호주, 멜버른 시내 총기 난사로 사상자 발생(사망 1, 부상 3)
 - 4.14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유명 나이트클럽 앞에서 보안요원 3명과 행인 1명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, 호주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간 SUV차량에서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
 - * 호주경찰은 테러와 관련된 정황 未발견 / 우리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
- 필리핀, 남부 마라위市 점령 주범인 ISIS추종 반군지도자 사살
 - 4.15 필리핀 국방부장관은 “3.14 민다나오섬 남라나오주에서 사살된 테러리스트 4명 중 1명이 ISIS추종 마우테그룹의 지도자인 「아부 다르」로 확인(美 DNA검사)됐다”고 발표
 - * 마우테그룹은 '17.5월 마라위市 점령, 정부군이 5개월만에 소탕(1천여명 사망)
- 파키스탄, 페샤와르에서 테러단체 조직원 5명 사살
 - 4.16 파키스탄 현지언론은 “軍과 경찰이 페샤와르市에 테러범들의 은신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, 15일 밤부터 약 17시간에 걸친 합동 소탕작전을 실시하여 테러범 5명을 사살하고 경찰 1명이 사망했다”고 보도(軍은 테러범들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폭발물 50kg을 발견하였다고 발표)

중 동

- 이란, 美 정부의 「이란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」에 반발
 -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 “이란혁명수비대가 이라크·시리아 국민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ISIS가 두 나라를 점령했을 것이며, 유럽에 테러조직을 보내 위협하고 있을 것”이라며 美 정부의 테러조직 지정을 강력 비난
 - * 4.8 美 정부는 최초로 외국 정규군사조직인 「이란혁명수비대」를 테러단체로 지정

레바논 베이루트 주재 美대사관 폭탄테러

- '83. 4. 18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美대사관에 폭발물(910Kg)을 실은 트럭이 돌진하여 폭발

* 폭발로 건물 북쪽 면이 붕괴되어 63명 사망, 100여명 부상



- 이슬람 지하드 단체가 미국의 외교공관을 노린 최초의 공격이며, 해당 테러를 주도한 세력은 헤즈볼라(Hezbollah)로 판명
 - 테러 직후 언론사에 익명의 전화로 “이것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이란혁명의 일부분이다, 우리는 다국적군을 포함한 어떠한 십자군들의 레바논 주둔에 대해서 계속 공격할 것”이라는 메시지 전달
- 한편, 同 테러는 배경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('82.7월) 등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레바논 내전 개입에 대한 반발로 자행된 것으로 분석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아랍의 봄 >

- (의미) '10.12 튀니지에서 촉발되어 중동·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정치 부패와 경제악화,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운동
- (원인) 중앙 정부 및 기득권의 부패와 타락, 빈부 격차,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대중의 분노 등
- (확산) '10.12 튀니지의 민주화 성공 이후 예멘, 이집트, 리비아 등에서 장기 독재정권 세력 축출에 성공
- (결과) 튀니지 외에는 민주화에 실패하고 사회혼란이 지속 중이며, 내전·종교 간 대립 특히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세력 ISIS의 등장이 문제로 대두